대학생의 의식구조와 대학 생활

유 팔 무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의 새로운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교수상으로 '실력있고 연구하고 활동적인 교수'보다는 '인간적으로 친근하고 강의에 열중하는 교수'를 꼽는다든지, 강의실에서 신세대 모자 쓰기를 고집한다든지, 해외 어학연수와 유럽 배낭여행을 선망하는 점 등은 분명 달라진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변하지 않은 모습에 비하면 피상적이라 할 만하다. 학생 대상의 각종 설문조사는 상당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니는 목적을 '교양과 인격도야', '인간관계 확장', '취직' 그리고 '동아리활동'이나 '취미활동'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실 '한국적 현상'이라 할 만하다. 21세기를 앞둔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세대', 'X세대', '영상·감각세대'라는 평을 들어온 오늘의 학생들조차 전통적인 의식구조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가치관의 혼란'과 '진로문제'를 심각한 고민거리로 안고 있다.

1. 대학에 다니는 목적에 대한 인식

'93년도에 중앙대(서울 캠퍼스) 학생 681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1]에 의하면,

1) 이준일·최철용(1994), "학생 생활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

학생들이 밝힌 '대학 생활의 목적' 가운데 첫째로 많이 꼽은 것은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으로서 응답자의 32.1%에 달했다.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40.2%가 이것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꼽은 것은 '교양과 인격 도야'로서 28.3%(1학년은 27.5%)에 달했다. 이처럼 60%를 넘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목적을 인간 관계나 인격 수양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위상과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대다수 학생에게 대학은 소위 '학문의 전당'과는 거리가 먼 사교의 장, 인격 수양의 수련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문, 전문지식의 습득'을 대학 생활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체의 24.4%에 불과했으며,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 적어 19.0%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대학 생활의 목적을 '장래의 진로(직업) 설정'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15.2%였다.

1994년 11월 전남대생 365명, 충남대 354명, 경북대 331명 등 총 1,050명을 상대로 한 조사[2]에서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는 항목별로 '전문지식 습득'을 가장 많이 꼽아 30.0%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교양과 인격 도야'(28.5%), '인간 관계 형성'(26.8%), '취업준비'(10.4%), '낭만과 취미생활'(4.3%)을 꼽았다. '교양과 인격 도야', '인간 관계 형성' 그리고 '낭만과 취미생활'을 꼽은 학생들을 합치면 59.6%에 달하고 있다.

'95학년도 한림대 신입생을 상대로 한 조사[3]와 '94년 11월 강원대 학생 1,789명을 상대로 한 조사[4]에서도 그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을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인격 수양의 장소로 인식하는 것은 서울 지역의 소위 '명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96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4,576명을 상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5]에 의하면, 신입생들이 '대학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많이 꼽은 것은 '전공 공부'(31.6%)였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친구 교제'(29.4%), '교양 서적 탐독'(13.4%), '서클 활동'(10.0%), '이성교제'(7.8%)를 꼽았다. 이를 합하면 60.6%로 대학 진학 고유의 목적인 '전공 공부'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교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절반 가량(49.4%)이 '인간적인 유대'를 꼽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 '전공지도'는 23.3%, '인생관 조언'이 15.5%로 나타났다. 교수에 대한 기대 역시 '비학술적'이고 '인간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6]

생생활연구』, 제15집.

2) 이의정·송병일·유정수(1994), "전남대학생들의 특성 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26집.

3) 최병돈·김은영·지승희(1995), "1994, 1995학년도 신입생 실태 분석",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7권.

4) 안범희·최윤미·홍성열·전우병(1995), "강원대학교 재학생 실태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15집.

5)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1996), 『1996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일반특성과 심리특성 보고서』.

6) 이와 같은 교수상은 '94학년도 연세대 재학생들에게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바람직한 교

연세대의 경우를 보자. '94학년도 연세대 재학생 3,556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7]에 의하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생활영역이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생활영역은 전공 공부이지만, 학년에 따라 그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 1학년의 경우는 그 비중이 낮아 '이성교제 및 친구교제'(31.3%)에 못 미치고 있으며, 4학년의 경우 취직, 자격시험 준비(35.9%)에 못 미치고 있다. 학년에 따른 이와 같은 비중 변화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의식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1학년 시기에는 사교가 가장 비중이 크고 취미·동아리 활동, 교양서적 탐독 등에 비중을 둔 경우가 40%를 넘는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변화하여 전공 공부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 3학년으로 가면서는 여기에 덧붙여 취직 및 자격시험 준비에 비중이 크게 두어지면서, 특히 사교의 비중이 격감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4학년이 되어서는 취직 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많은 학생들(85% 이상)의 경우는 또 전과를 희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정학과로 전과하겠다'는 학생이 59.3%나 되었고, 그 밖에는 '전과하고 싶으나 어느 과로 가야할지 막막하다'(16.3%) 혹은 '전과하고 싶으나 진로 문제로 현재 학과에 머무르겠다'(10.9%)고 답하였다. 전과를 원하는 경우, 그 주된 이유로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

〈표〉 현재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생활영역 (단위 : %)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체
전공 공부	19.2	34.9	35.3	21.2	28.0
교양서적 탐독	10.4	9.2	5.5	6.2	7.9
동아리 활동	15.5	12.4	4.7	2.3	9.1
취미 활동	16.0	7.1	4.3	5.2	8.3
이성 및 친구 교제	31.3	20.1	9.7	11.6	18.5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3.3	2.0	2.7	1.2	2.4
취직 및 자격 시험 준비	3.4	11.4	31.7	35.9	19.6
대학원 및 유학 준비	1.0	2.8	6.2	16.4	6.0

수상에 대해 1~6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인간적이고 친화감 있는 교수'가 2.31점(순위평균)으로서 1위였다. 그 다음은 '강의에 열성적이고 충실한 교수'(2.52점), '인격적이고 강직한 교수'(3.26점)였다. 반면, '사회활동적인 교수'(5.04점)는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연구지향적인 교수'(3.50점)도 6개 유형 가운데 4위에 그쳤다. 김은정·이정윤·이기학·한종철(1995), "1994학년도 재학생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연세상담연구』, 제11권.

연구나 사회활동에 열중하는 교수보다 교육기능에 열중하는 교수를 선호하는 이러한 경향은 '93년 중앙대 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람직한 교수상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수업 및 학생들의 학문적 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65.6%)였다. '전공분야에 실력이 많은 교수'(14.2%), '학생들의 취업이나 장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수'(12.0%), '저술활동과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수'(4.7%), '사회 및 정치문제에 의식이 높은 교수'(3.4%) 등은 그 다음 순이었다. 이준일·최철용(1994), "학생생활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15집.

7) 김은정·이정윤·이기학·한종철(1995), 위의 글.

다'는 학생이 46.2%,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31.4%였으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학생은 11.5%였다.

2. 학생들의 사회의식과 인생관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은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전남대, 충남대, 경북대 학생을 상대로 한 앞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3가지 선택)로 '부정부패'(46.2%)를 1위로, '교육제도'(30.3%)를 2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외교에서 주체성 확립'(28.4%), '국제경쟁력 회복'(28.1%), '지도급 인사의 도덕성 회복'(24.5%), '정치민주화'(23.6%), '사회의식'(20.7%),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13.6%; 전남대 25.9%, 충남/경북대 6.9%) 순이었다. 모두 15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가장 적게 꼽은 것은 '교통문제'와 '경제성장'으로서 각각 5.1%와 7.4%에 불과했고,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문제', '환경 문제'도 각각 9.4%에 불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장 긴박한 문제를 부정부패로 보고 있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단히 강하다는 점, 이러한 문제들에 비해 경제성장이나 교통, 환경문제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소위 '신세대'라 불리기도 하는 대학생들이 아직은 서구적인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문제의식을 한층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8]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생각보다 더 비판적이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문화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이다. '아주 잘못하고 있다'와 '기대 이하이다'를 합친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 70.4%, 교육 62.3%, 지역균형 발전 58.8%, 통일분야 47.9%, 경제분야 47.2%, 사회/복지 46.5%, 외교 45.5%, 문화분야 2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아주 잘한다'는 평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예전보다 낫다'는 견해는 문화분야에서 28.7%로 나타났을 뿐, 대개 10~15% 정도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학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대, 경북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49.3%인 데

8) 이러한 경향은 다른 대학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한층 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94년도 연세대 학생을 상대로 한 앞의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기주의적인 생활방식'을 1순위(36.5%)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물질만능주의'(19.6%), '계층간의 불화와 위화감'(16.9%), '불신풍조'(16.7%), '향락주의문화'(6.2%), '환경오염'(4.2%)을 꼽았다. 이러한 응답성향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신세대 문화권'의 하나에 속한 연세대 학생들조차도 전통적이고 모더니즘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95년 9월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7주년 기념으로 전국의 21개 대학 1천 2백여 명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도덕성 회복'(21.1%), '남북통일'(18.2%), '계층간 갈등해소'(16.3%), '부의 균등분배'(15.5%)를 많이 꼽아 전통적인 문제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95년 10월 16일자 참조.

반해, 전남대의 경우는 무려 76.2%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95년 9월, 21개대 1천 2백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9]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사회구조로 학생들은 '자본주의 틀에 사회주의 요소를 수용한 것'을 가장 많이(45.0%) 선호했다. 그 다음으로는 '자본주의'(22.4%), '사회민주주의'(15.0%)였으며, '사회주의 틀에 자본주의 장점을 수용한 것'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는 경우는 각각 7.1%, 2.1%, 1.6%로서 합하면 10.8%에 달하였다. 여기에 사회민주주의까지 합하면, 대학생 가운데 약 1/4 정도는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대, 충남대, 경북대 학생들의 경우,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화목한 가정'을 1순위(50%)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신대로 사는 것'(34%), '건강'(33%), '직업에서 존경받는 것'(32%),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26%),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여가시간'(23%), '좋은 친구'(17%)를 꼽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가운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는 단지 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가지 선택)으로는 '실력'을 가장 많이(55.2%)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벌(35.9%), 노력(27.5%), 인간관계(22.1%), 배경(18.3%), 재력(17.8%) 등을 꼽았으며, 운이나 인격을 꼽은 경우는 각각 8.8%, 7.8%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 또한 흥미로운 시사를 준다. 우선 '인격'은 성공을 하는 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점, 그리고 실력이나 노력 이외에 학벌이라든가 인간관계, 배경, 재력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정도만큼 우리 사회가 비정상으로 읽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연세대 학생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앞의 '94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첫째가 '권력 또는 배경'(46.9%)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은 '능력'(37.4%), '학벌'(6.9%), '재산'(5.5%)을 꼽았다. '인격과 덕망'을 꼽은 경우는 단지 2.2%, '학식'을 꼽은 경우는 이보다 못해 1.5%에 불과했다.

3. 학생들의 일상 생활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94년 11월 강원대 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10]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거주 형태는 자취(49.0%)와 하숙(4.1%)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가(26.0%), 기숙사(14.4%), 통학(4.8%), 친척집(1.6%) 순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9) 『한국대학신문』, '95년 10월 16일자.

10) 안범희·최윤미·홍성열·전우병(1995), "강원대학교 재학생 실태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15집.

현상은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2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앞의 조사[11]에서는 자가가 65.8%, 자취(전세) 11.3%, 자취(사글세) 9.2%, 하숙 5.8% 등으로 4명 중 1명이 자취 혹은 하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세를 들고 있는 강원대 학생들의 평균 전세값은 680만 원 가량이었다. 월세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보증금에 월 평균 13만 5천 원 가량의 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 달 식비는 평균 9만 6천 원 가량이었다. 하숙비의 경우, 월 10~20만 원이 가장 많아 55.2%였고, 20만 원 이상이 23.8%, 10만 원 미만은 18.0%였다.

생활용품 소유 상황을 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4.6%, 오토바이는 5.0%, 자전거 7.8%, TV 56.3%, 컴퓨터 36.3%, 오디오 23.8%, 카세트 81.2%, 냉장고 57.1%, 세탁기 32.1%, 삐삐 17.2%, 핸드폰 0.4%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한 달 평균 순수 용돈(하숙생이나 자취생의 경우 주거비와 식비를 제외)은 평균 13만 5천 원 가량이었다. 남자는 14만 5천 원, 여자는 12만 5천 원 가량으로 남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용돈 지출내역을 보면 유흥비에 40,900원, 외식비에 35,800원, 의생활비에 27,000원, 도서비에 20,100원, 기타 32,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용돈 규모나 생활 상태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93년도 중앙대(서울 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한 달 용돈은 평균 20.2만 원(남자는 21.2만 원, 여자는 17.5만 원)이었다. '94년도 연세대의 경우, 월 평균 용돈은 학비와 기본 생활비를 제외하고 23만 4천 원(남학생은 23만 2천 원, 여학생은 23만 8천 원)이었다. '95년도 이화여대의 경우, 월평균 용돈이 21~30만 원인 학생은 44.7%, 10~20만 원이 28.8%, 31~40만 원이 16.3%, 41만 원 이상이 7.5%, 10만 원 미만은 1.6%였다.

이러한 용돈 수준은 '94년 11월에 조사한 전남대, 충남대, 경북대 학생들의 용돈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이었다. 전남대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생이 10만 원 이하의 용돈을 쓰고 있었으며, 충남대와 충북대의 경우는 10만 원 이하가 33.0%, 11~15만 원이 30.1%, 그 이상이 36.7%였다. 서울에 소재한 중앙대나 이화여대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용돈을 벌기 위해 흔히 아르바이트(부직)를 하고 있다. 강원대 학생들의 경우, 부직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60.5%(남자 55.2%, 여자 65.5%)에 달했다. 학생들이 경험한 부직의 종류를 남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과외가 35.2%로 가장 많았지만, 남학생의 경우, 노동이 38.2%로 과외지도 21.8%보다 많았다. 여학생들은 과외지도가 46.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그 다음은 호프집, 카페, 식당 등에서의 배달(29.8%)이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지역에 따라, 학교의 성격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93년도 중앙대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전체의 23.8%(여자가 34.4%, 남자는 20.2%)였는데, 가정교사가 대다수

11) 『한국대학신문』, '95년 10월 16일자.

(77.6%)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소수의 학생들이 노무직(노동, 경비, 배달 등), 시간제 근무(카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를 한다고 밝혔으나, 그 비중은 미미했다. 아르바이트의 목적은 '용돈 마련'(54.2%),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16.1%), '학비 보탬을 위해서'(15.7%) 등이었다. '94년도 연세대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모두 91.3%였는데, 이 가운데 과외지도가 93.4%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된 강원대 학생 가운데 교제하는 이성이 있는 경우는 30% 가량이었고, 69.7%는 '없다'고 답했다.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한 달에 평균 11.54회 데이트를 하고, 한 번에 평균 5시간 11분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할 때 주로 가는 장소는 카페(33.4%), 영화관(21.0%), 상대방의 집(12.5%), 교외(11.7%), 술집(11.0%) 등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데이트할 때 드는 경비는 평균 4만 1천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에 드는 비용은 남녀가 반반씩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아 50% 정도였고, 남자가 혼자 내는 경우는 40% 정도, 여자 혼자 부담하는 경우는 10% 가량이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도서관으로서 한 달 평균 13.77회였다. 그 다음으로 자주 찾는 곳은 당구장으로 월 평균 7.22회(남자 7.37회, 여자 5.11회)였고, 그 다음은 수영장(4.55회)으로 서점(4.23회)보다 자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호프집(3.06회), 비디오방(2.59회), 볼링장(2.45회), 닭갈비집(2.28회), 노래방(2.22회), 레스토랑(1.79회), 영화관(1.7회), 디스코장(1.61회) 순이었다.

학생들의 음주 실태를 보면, 술을 마신다고 답한 경우는 77.5%(남자 83.0%, 여자 72.3%)였다. 월 평균 음주 횟수는 5.84회였고, 그 때마다 평균 10,71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겨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맥주와 소주로, 남자의 경우는 소주가 48.4%, 맥주가 47.6%였고, 여자의 경우는 맥주가 77.1%, 소주가 18.6%였다.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경우는 남녀 공히 2% 내외에 불과했다.

4. 대학의 이상과 현실

이상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 대학생들이 어떤 의식구조 속에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측면들을 단편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 인식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에 관한 생각,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상태의 대강을 읽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 대학에 대한 기대가 다분히 비정상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용돈을 벌기 위해 많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는 사실 등이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해 볼 것은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즉 대학에 다니는 이유나 대학 생활에서 비중을 크게 두는 일이 '학문 외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학생은 대학을 학문 혹은 전공 공부를 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대학 생활에서의 비중도 크게 두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대학은 과연 많은 등록금을 들여 교양을 쌓고 인격을 도야하

고 친구를 사귀는 장소라는 말인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문화공간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그러는 사이에 취직시험 준비를 하고, 학점과 대학 졸업장을 얻으면 그만인 그런 곳인가.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이상적인 잣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의 이같은 대학 현실은 정상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두드러지지만, 개인적인 인생관 혹은 가치관을 보면, 그것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많은 학생들은 삶의 중요한 요소로 '화목한 가정' 같은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관심권 밖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오늘의 우리 대학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을 통해 빚어지는 '대학문화'라는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유팔무/서울대 사회학과와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수학한 후,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학보사 주간을 맡고 있다. 계간 학술지 『경제와 사회』 편집주간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산업사회학회 부회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책위원,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공저로 『지배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춘천리포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등이 있다.